통일부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지속과 변화

김 승
건국대학교

제1장 서 론 ····· 3
제2장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제작현황 ····· 5
제3장 구성과 주제의 연속성 ····· 10
제4장 영상재현 변화의 의미 ····· 13
제5장 결 론 ····· 19
[참고문헌] ····· 22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춰 먼저, 기록영화 제작현황을 파악하여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개략적인 연도별 제작편수와 주요 제작경향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작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대표작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특성을 연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김정은 정권의 기록영화는 선대의 영향 아래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적 측면을 띠고 있었다. 특히 수미상관의 양괄식 서사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영상재현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포착된다.

첫째, 영상 공개의 신속성이다.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처럼 기록영화에서 재현되는 모습 또한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이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 현지지도의 풍경과 분위기가 생생한 영상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둘째, 화면 구도의 변화이다. 이른바 '가운데 선'을 지키지 않고 김정은의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부감 촬영한 화면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소 의도적인 선전전술로서 김정은의 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거리 줄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기록영화에서는 김정은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하는 어버이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었던 '이민위천(以民爲天)'을 김정은식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은 내용 자체는 과거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은 큰 틀에서 선군문학론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명작 창작을 요구하는 당국의 주문과 달리 실제 창작현장에서는 보수적 창작 스타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용어 : 북한 기록영화, 북한영화, 북한 문학예술, 영상재현, 다큐멘터리

표 목차

<표 2-1>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 제작현황 ····· 6
<표 2-2> 노동신문에 출현한 기록영화(2012-2016) ····· 7

제1장 서 론

김정은 체제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테제는 자강력을 기초로 과학기술, 우주강국, 일상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마식령 속도, 조선속도, 만리마 속도와 같은 노동집약적 집단 운동을 제시했다.[1] 결국 사회 제반의 발전에 대해 특기할 만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과거 경향을 답습했으며,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수세적 노선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최상의 문명국 건설'을 당면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든 문학예술의 창작가들에게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작의 활성화, 특히 명작의 창작이었다.[2]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학예술계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백두의 칼바람으로 문학예술의 침체를 떨쳐내고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주장하지만, 모란봉악단의 모범 사례를 제외하면 북한 문학예술의 침체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영화의 깊은 침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예술영화는 2012년 5편, 2013년 0편, 2014년 2편, 2015년 1편이 각각 제작됐다.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장르였던 예술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못했던 것이다. 김일성 시대는 물론이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제외한 김정일 시대에 연평균 20여 편이 제작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제작 편수이다. 물론 제작편수가 침체의 골을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선대와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위축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영화예술부문이 하루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사장 위웅용은 "이제는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며,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열 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우리 식의 훌륭한 영화문학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으며,[3] 이러한 자구책에 힘입어 2016년에 이르러서야 8편 가량이 제작됐다.

한편 예술영화의 침체 상황에서도 북한 기록영화는 영화문헌[4]과 주제기록영화[5]가

---

1) "신년사," 『로동신문』, 2016년 1월 1일.
2) 리현순, "천만군민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조선예술』, 제3호(2016), 4-5쪽.
3) 위웅용,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조선예술』, 제6호(2016), 4-5쪽.
4) 영화문헌은 수령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의 한 갈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승, 『북한

매년 40-60편 내외로 꾸준히 제작됐다. 대중선전 매체로서 기록영화가 여전히 북한 체제 내부에서 유효한 작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기록영화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끔 역사를 전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상기호의 일부 기표는 지울 수 있으나 전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영화를 적확(的確)하게 분석해낸다면 북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6]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학예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장르의 쏠림현상이다. 예술영화의 침체와 모란봉 악단의 중용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 당국이 대주민 선전선동 수단으로써 기록영화를 주목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록영화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김정은 시대의 기록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올바른 정책 도출과 정보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대상을 유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춰 먼저, 해당 시기에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된 전체 기록영화의 연도별 제작편수와 주요 제작경향 등을 파악하고, 발간된 노동신문을 면밀히 분석한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이 강조한 주요 대표작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특성을 연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시도는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로 분석한 성과를 통일 정책에 활용하고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대의 북한 기록영화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북한 변화의 수준,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제2장 김정은 시대의 기록영화 제작현황

제1절 조사방법 및 결과

김정은 시대의 기록영화 제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방영된 조선중앙TV 편성표를 전수조사하고,[7] 이를 조사의 기준점(reference)

기록영화』(파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년, 27쪽 참조.

5) 주제기록영화는 창작자가 사회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실 자료를 취사선택해 만드는 기록영화의 한 종류이다. 위의 책, 29쪽.

6) 김승, 『북한 기록영화, 그 코드를 풀다』(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173쪽.

으로 삼았다. 둘째, 해당 시기 북한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대해 문헌조사를 행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신문의 기록영화 관련 기사를 전수조사 했으며, 북한의 공식적 공간문헌인『조선중앙년감』과 북한 영화예술 관련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조선예술』을 보조적으로 검토했다. 셋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시청각 자료와 연구자가 상시 녹화하고 있는 조선중앙TV 녹화물과 비교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북한 기록영화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총 265편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세부 목록 부록1 참조).[8]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화문헌이 162편, 주제기록영화가 103여 편이다. 그런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공개한 조선중앙TV의 편성표만으로 해당 시기 제작된 모든 기록영화를 대별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 당국이 공개를 꺼려하는 자료영화[9]와 같은 기록영화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비리를 폭로한 통보자료영화는 정치적 숙청 시 상부에 비리보고용 근거자료로 사용되기에 자극성이 매우 강하고, 엄격하게 외부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표 2-1>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 제작현황

연도	영화문헌	주제기록영화	제작편수
2012	54	24	78
2013	48	17	65
2014	21	25	46
2015	25	16	41
2016	14	21	35
합계	162	103	265

한편 조사기간 동안 노동신문에는 기록영화 관련 기사가 10여 차례 언급됐다.[10] 특이한 점은 조선예술에는 새로운 기록영화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노동신문에는 간헐적으로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3월 1일자 노동신문에서는

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TV 프로그램 편성표 참조 http://nkinfo.unikorea.go.kr/nkp/theme/nktvprgrList.do.
8) 다부작 기록영화는 1편으로 추정했다.
9) 자료영화는 비공개용으로 일반 보급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으며 해당 대상의 실태를 편집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장르적 특성 연구: '주체의 기록영화이론'을 중심으로,"『문학과영상』, 제15권 2호(2014), 308쪽 참조.
10) 이미 과거에 제작된 기록영화를 다시 소개하거나, 동일 기록영화를 반복 소개하는 것은 제외했다.

김정일의 혁명활동과 장례식을 수록한 실록영상인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1부(전, 후편)에 대한 기사가 1면으로 실렸다.[11]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 개별 기록영화가 1면에 소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사건이다. 2102년 12월 12일 제4부가 발표될 때까지 다부작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는 매번 노동신문 1면을 통해 공개사실이 알려졌다.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 2012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2013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차차 안정을 찾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라졌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에 대한 추모 열기와 그 계승자인 김정은의 정통성을 담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록영화를 통해 대주민 선전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에서 앞으로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같은 격변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기록영화를 통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표 2-2> 노동신문에 출현한 기록영화(2012-2016)

발간일	기사명	지면
2012.03.01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1부(전, 후편)가 나왔다	1
2012.03.20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2, 3부가 나왔다	1
2012.12.12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제4부가 나왔다	1
2012.12.21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 관람	1
2012.12.23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7) 상영	5
2012.12.29	기록영화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여> 상영	3
2013.02.15	기록영화 <우리 장군님은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 상영	2
2015.12.24	기록영화 <어버이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여> 상영	3
2016.08.2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참가자들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 관람	3
2016.10.23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관람	2

조사기간 동안 노동신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록영화는 2016년 제7차 노동당

11)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뜻밖에 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대하에서 세상에 없는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치며 어버이장군님과 가장 비통하게 영결한 력사적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후손만대 길이 빛날 위대한 선군태양의 영생실록,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1부 (전, 후편)가 나왔다,“『로동신문』, 2012년 3월 1일.

대회를 마치고 제작된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이다.[12] 이 기록영화는 총 5차례에 거쳐 노동신문에 언급된다.[13]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김정은이 수령들의 염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한 결과, 10년 20년을 단 1년만에 이룩하는 만리마 시대, 자강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변혁의 시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았다고 주장한다.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는 2016년 6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후로 무려 16차례에 거쳐 재방송됐다. 이 기록영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제2절 제작현황 분석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화면형상을 그대로 수록하여 보여주는 예술로 발전되어 왔으며,[14] 수령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영화문헌과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기록영화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는 문학을 시, 소설, 수필 등으로 장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15]

김정은은 2012년 1월 3일 공개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현지에서 지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영화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영화는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현지지도영화문헌이다. 현지지도영화문헌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 취급, 보급하는 '당기요문헌(黨紀要文獻)'이 된다.[16]

---

12) 주요 내용은 김정은이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 변혁을 이룩한 업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고영도자의 영도가 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혁명대오를 향도하는 당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역설한다. 인민들은 최고지도자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서 당의 주체적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관람," 『로동신문』, 2016년 8월 27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선성기글 펼쳐주시여>를 관람," 『로동신문』, 2016년 10월 23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관람," 『로동신문』, 2016년 11월 15일, "조선농업근로자등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관람," 『로동신문』, 2016년 12월 5일,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선성기를 펼쳐주시여> 관람," 『로동신문』, 2016년 12월 23일.

14) 『주체의 기록영화』에서는 "문학예술의 다른 종류들도 생활묘사를 통하여 시대와 력사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것은 허구에 의한 창작인 것으로 하여 력사자료로서 문헌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다.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9쪽.

15)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승, 『북한 기록영화』, 29-30쪽을 참조.

16) 김정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원들앞에서 한 연설(1970년 10월 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72-273쪽.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이 영화문헌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등극한 것이다.

2012년에는 영화문헌이 69.2%, 주제기록영화가 30.8%의 비율로 제작됐다. 이 해는 김정은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해였기 때문에 주제기록영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영화문헌의 비중이 높았다. 영화문헌은 2013년도에 73.8%의 비중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는 점차 낮아졌으며, 주제기록영화의 비율이 증대됐다. 2016년에 영화문헌과 주제기록영화는 대략 4: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김정은 정권의 조기 안착을 제시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최고지도자의 혁명활동 선전을 줄이는 대신에 다양한 주제의 기록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제작 경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화문헌은 현지지도영화문헌이 가장 많이 제작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대략 격월 간격으로 제작돼 왔다. 이들 영화문헌은 김정은 정권의 최신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영화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 등장하는 현지지도 동행 인물 분석을 통해 북한의 파워엘리트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를 통해서는 북한의 최신 군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특징적 영화문헌으로는 2013년 2월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기를 수록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롱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를 관람하시고 미국 NBA 이전선수와 일행을 만나시였다>가 있다. 우리에게는 단신에 불과한 내용이 기록영화로 제작돼 인민들에게 상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5년 9월 제작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을 환대한 내용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과 같은 다수의 행사영화문헌도 제작됐다.

2012년에 주제기록영화는 30.7%에 그쳤지만, 2014년도에 54.3%로 50%대를 회복한 이후 현재까지 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기록영화는 창작가가 사회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실자료를 취사선택하여 만드는 기록영화의 한 종류이다.[17] 즉, 주제기록영화는 일정한 주제와 사상적 과제를 가지고 만든 기록영화이다. 그러나 주제가 없는 기록영화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 의미의 구분이며, 창작은 전형화의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18]

2012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위대한 혁명생애의 2011>과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

17)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 35쪽.
18)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 특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3쪽 참조.

는 우리 수령님>이 제작됐으며 2009년부터 제작돼 온 다부작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8부)-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여>가 제작됐다.

2013년에는 <인민의 기쁨 넘치는 중앙동물원>과 <문수물놀이장에 깃든 인민사랑의 새 전설>과 같은 주제기록영화가 제작된다. 조문 정국에서 빠르게 인민생활 향상으로 제작 주제가 전환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을 추모하는 <어버이장군님 지식인들과 함께 계시여>가 제작되는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새 전성기를 펼쳐주시여>가 제작됐다. 2014년부터는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여>와 같은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정은 정권이 조기에 안착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영화문헌에 비해 주제기록영화가 60.9%의 제작비율을 보인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행복의 기념사진>, <승리의 전통>과 같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행복의 전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기록영화는 영화문헌과 주제기록영화의 비중이 일정하게 제작된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3장 구성과 주제의 연속성

제1절 편집과 서사구성의 지속

북한은 김정은 시대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해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창작의 새로운 전성기로 열어놓기 위한 총공격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창작가들에게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지칠 줄 모르는 창작적 열정으로 주체예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고 심장의 불길과도 같은 대극장의 불빛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의 당성과 혁명성을 검증받아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2012년 1월 공개한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 하시여>는 김정일 사망 한 달도 안돼 발표된 기록영화이다. 이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이 절대 신뢰를 보여준, 백두혈통의 적통자로 재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 역시 김정일과 똑같은 선군영장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면 1-1>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등장시켜 상황을 설정한 후에 김정일과

김일성을 번갈아 보여주고(<화면 1-2>, <화면 1-3>참조) , <화면 1-4>의 총을 인서트 화면으로 설정함으로 이 총대를 받아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결국 <화면 1-5>에서 이 총을 김정은이 받게 되는 교차 편집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화면 1-1>


<화면 1-2>


<화면 1-3>


<화면 1-4>


<화면 1-5>

이는 고전적 선전기법 중 전이(transfer)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을 삼부자에 대한 교차편집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혁명을 개척했고, 김정일은 태양이고, 김정은은 깃발이라는 은유를 통해 김정은이 혁명의 계승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때 인민들은 김정은에 대해 자연스럽게 후계자 이미지를 갖게 된다. 북한은 이미 2010년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당대표자 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공개한 기록영화에서도 교차편집기법을 사용했다. 김정일 역시 자신의 계승문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3년에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영화를 활용한 바 있다.[19]

서사구성의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기록영화는 뚜렷한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이자, 수미상관의 양괄식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갑산파 숙청 이후 북한 기록영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서사구조이다. 이러한 구성양식은 주제 강조에는 효과적이지만 닫힌 결말의 형태를 띠게 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상을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5.4-5)에서 공개했다.[20] 이 기록영화의 도입과 엔딩에는 SLBM의 성공을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뭉쳐 수령이 제시한 노선과 방침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설한다. 기록영화를 통해 수령의

19)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의미 체계 : <계승자들>에 대한 표상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5권(2015), 147-176쪽 참조.

20) 이 장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른 영상과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이어 물속에서부터 수면을 뚫고 SLBM이 사출되는 모습이 정확히 잡혀 사출 시험 자체에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위대성과 혁명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국에 맞서는 강한 군사적 자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과 계속되는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상을 믿고 따르자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 체제수호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21]

이러한 양괄식 방식은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제시한 주제를 관객에게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령을 정점으로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서사구조와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주장하는 논증 구조이다. 이러한 양괄식 구성양식은 주제 강조에는 효과적이지만 열린 결말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차단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선전의 극대화를 위해 양괄식 서사구성을 지속하고 있다.

제2절 전형화의 추구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2016.5.6.-5.9)에서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전사로서의 사상적 각오와 입장이 투철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명작 창작을 위해 사색과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창작가들이 예술적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지도일군들은 주체적 미학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채 전형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 세대 창작가들은 이전 세대를 능가하겠다는 야심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실로 문학예술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핵심적인 선전선동의 매체중 하나로 주민들을 통합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 문학예술부문에서 "천만심장에 불을 다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인민의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의 전형적 창작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영화문헌의 경우에는 창작에서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 정책이 크게 강화되는 가운데 그 비중이 김일성과 김정은에서 김정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집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점점 사라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

21) 북한은 2015년 1월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4.12)에서 기존 로미오급(1800t급)이나 상어급(350t) 잠수함과는 다른, 좀 더 개량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위 '신포급' 잠수함은 아니며, 크기를 보면 어뢰 발사나 기습침투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직접 낭독한 사업 총화에서 북한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에 이르렀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를 위해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도덕기강을 더욱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문화적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잇따라 당사상일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직업동맹, 특히 청년동맹의 군중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기 보다는 김정은 시대를 지탱해줄 대중적 권력기반을 청년세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화적 상황 변화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외부문화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북한식 시장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다양한 상품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화상품도 포함되고 있다. 청년 중시 정책은 외부문화의 북한유입을 차단하고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한 선전선동에 집중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된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청년운동 영도사를 전형적으로 그리고 있다.[22]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김일성이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항일혁명 속에서 몸소 키운 혁명의 첫 세대 청년전위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적 무장대오를 조직영도하여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록영화에서는 선대 수령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가는 김정은을 주체혁명 위업 계승의 적통자로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에 수록된 화면을 통하여 관람자들이 불패의 청년강국을 세워준 수령의 혁명생애를 회고하고, 주체의 청년운동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청년운동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형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은 물놀이장과 놀이공원을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정책변화를 꾀하면서도, 외부문화의 경우에는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인민을 공개처형했다는 뉴스를 간헐적으로 접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후

22) 이 영화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일성이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청년문제해결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여,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주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준 수령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아래 청년강국건설의 빛나는 전통과 만년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김정일이 수백만 청년들을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한 당의 청년전위들로 키웠고, 주체의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한다. 특히 김정일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청년들을 혁명적 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들로, 선군혁명의 기둥감들로 키워줬다고 역설한다.

한류를 비롯한 외부콘텐츠의 차단에 주력하는 등 제반 규율이 강화된 추세를 보인다. 이는 외부문화의 확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 체제 전반을 정비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부문화의 유통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주민의 변화하는 문화적 취향에 새로운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제4장 영상재현 변화의 의미

제1절 화면구도의 변화

김정은의 집권시기가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사실만으로 그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상재현적 측면에서 북한 기록영화는 이전 시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처럼 기록영화에서 재현되는 모습 또한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이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 현지지도의 풍경과 분위기가 생생한 영상으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중앙TV가 2015년 6월 5일 방영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는 김정은이 자라 양식공장 시찰에서 격분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이 영화 속에서 김정은은 수행원들에게 화난 표정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말을 하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한 몸짓과 삿대질을 했다(<화면 2-1>). 이에 수행원들은 부동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모습이 담겼다(<화면 2-2>). 김정은이 이 공장의 사업 실태에 대해 대노했다는 사실은 이미 노동신문을 통해 알려졌지만 영상으로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기록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은 확실히 신비주의를 지향했던 김정일 시대의 기록영화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화면 2-1>



<화면 2-2>

이러한 영상은 잔상효과(after-image effects)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부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마치 가감 없이 환부(사회악)를 도려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를 표출하고 있다.[23] 이런 변화는 김여정이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제 관리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장악한 뒤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오류와 미진한 점도 선별적으로나마 적나라하게 공개해 변화를 독려하는 대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기록영화의 신속한 공개와 더불어 화면구도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공개 매체에서 대체로 이른바 '가운데선'의 정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런 구도는 최고지도자를 가장 잘 부각하려는 연출적 장치 중 하나였다. 대다수의 영상은 수령을 가장 부각하는 구도에서 촬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호탕한 웃음을 보이고 있거나 지휘관들에게 둘러싸여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앙각(low angle) 촬영한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이 경례를 받는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김정은을 부감(high angle)촬영한 화면을 표출하고 있다 (<화면 3-1>, <화면 3-2>참조). 또한 어린 아이들과 군인들이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웃는 화면들이 자주 등장했다. 심지어 기념촬영 시 김정은이 군인의 팔을 끼고 있는 듯한 장면도 눈에 띈다.





23) 또 다른 사례로는 이미 국내 보도로 널리 소개된 황병서의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5.4-5)에서 김정은보다 한 걸음가량 앞서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화들짝 놀라며 뒤로 몸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다.

<화면 3-1> <화면 3-2>

선대(先代)의 기록영상들이 모두 앞모습만을 담는다거나 북한 주민들과의 신체 접촉 장면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과 분명 차별화된 특징들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다른 인물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김정은을 팔로우(follow)하는 샷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특징은 다소 의도적인 선전전술로서 김정은의 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이 좋은 화면만을 고집하지 않는 진솔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제2절 거리줄이기 전략

북한은 김정은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하는 어버이상의 재현이며, 모든 인민들이 김정은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조국의 내일을 더욱 빛낼 것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사례로 2015년 10월 김정은이 나선지구 홍수 피해 현장복구에 나선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무질서하게 김정은과 사진을 찍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영화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을 향해 밀려오는 군인을 막기 위해 경호대원이 군인들을 강제로 통제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경호책임자로 보이는 군인이 김정은을 급하게 수행버스에 태우느라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도 생생하게 노출됐다. 또한 김정은이 밀려드는 인파에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화면 4-1>), 김정은을 환호하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환송하는 장면도 표출되고 있다(<화면 4-2>).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인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연출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면 4-1>



<화면 4-2>

적어도 북한 기록영화에서 투영된 김정은에 대한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가 연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인민들의 표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동선이 연출화면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른바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 전략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사강국에 대한 환상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가능성의 메시지를 핵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구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었던 '이민위천(以民爲天)'을 김정은식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기록영화에도 인민들과 함께 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엄격한 수령의 이미지보다는 편안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거리 줄이기'[24]를 재현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로부터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거리 두기' 전략과 상이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 공개한 <어머니당의 품-우리아버지>의 경우 김정은의 정치적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기록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록영화에서 비친 김일성과 김정은의 제스츄어는 상당 부분 유사해 보이고, 김일성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배경음악을 통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화면 5>) . 다큐멘터리는 기억의 극장(memory theater)이기 때문에 시청자는 익숙한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가 제시될 때 이전의 기억을 상상하게 된다.[25] 즉, 김정은의 이른바 '김일성 따라하기'는 혁명전통의 계승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면 5>



<화면 6>

24) 이와 상반되는 개념은 '거리 두기'이다. '거리 두기'는 관객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화(연극)의 행위와 성격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옮김, 『영화사전: 이론과 비평』(서울: 한나래, 1999), 23-24쪽.

25) Bill Nichols,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 58.

한편 영상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과 눈높이에서 촬영을 했다(<화면 6>).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때는 아이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봤는데, 여기에 변화를 준 것이다. 아마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참다운 어버이상의 재현을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아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고 인사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통해 엄격한 수령의 이미지보다는 편안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제3절 변화의 의미와 시사점

북한은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치고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공개했다. 이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해 변혁을 일으켰다고 묘사하고 있다. 집권 5년을 맞아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이 기록영화에서는 이전과 달리 곳곳에서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은을 군사적 지략가로 표현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화력과시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견주어도 군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억세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선전선동의 기본원칙은 끊임없는 시각적 반복이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통해 성과점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범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기록영화는 사실의 재현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전매체와 달리 '나는 지금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기록영화는 '산 자료'를 가지고 제작한다는 실재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실제 화면을 통해 공개되는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전시기에 흔히 사용되던 조선화의 활용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점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적어도 2016년까지는 김정은의 스스로의 업적을 내세우는 기록영화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더 많이 선전했다. 기록영화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기록한 기록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김정은의 집권 기간이 짧아서 쌓여진 기록영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까지 기록영화를 통한 김정은에 대한 신화창조와 스토리텔링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선화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26] 김정일은 영화미술이 "민

26) 조선화에 대해 김일성은 북한의 고유한 미술형식으로, 힘 있고 고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동양화)의 재창조를 통해 조선화가 현재적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되도록 요구했다. 김일성,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미술가들과 한 담화(1966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73-474쪽.

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높은 사상성을 가질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될수 있다"[27]고 했다. 북한은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선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재한 역사를 무한상상의 영역으로 확대・보완해 왔다. 즉, 조선화에 특별한 기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을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부각시켜왔다. 이러한 신화화는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우월함과 혁명적 낙관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록영화에 김정은의 조선화를 공개하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김정은 정권의 기록영화는 선대의 영향 아래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적 측면을 띤다. 특히 수미상관의 양괄식 서사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영상 재현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포착된다. 김정은의 집권시기가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사실만으로 그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기록영화는 이전 시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영상 공개의 신속·공개성이다.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처럼 기록영화에서 재현되는 모습 또한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이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 현지지도의 풍경과 분위기가 생생한 영상으로 세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김여정이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제 관리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장악한 뒤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오류와 미진한 점도 선별적으로나마 적나라하게 공개해 변화를 독려하는 대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화면 구도의 변화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공개 매체에서 대체로 이른바 '가운데선'의 정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런 구도는 최고지도자를 가장 잘 부각하려는 연출적 장치 중 하나였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김정은을 부감 촬영한 화면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소 의도적인 선전전술로서 김정은의 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이 좋은 화면만을 고집하지 않는

27)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문예출판사, 1973), 123쪽.

진솔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셋째, '거리 줄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기록영화에서는 김정은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하는 어버이상을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었던 '이민위천'을 김정은식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기록영화에도 어린이와 함께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엄격한 수령의 이미지보다는 편안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거리 줄이기'를 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김정일 시대의 '거리 두기' 전략과 상이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선전선동에서 영화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영화는 중요한 선전수단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태양절경축영화상영주간'을 설정하고 영화상영주간에 평양시와 전국의 영화관과 문화회관들에서 수령의 생애를 수록한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위대한 품>과 같은 혁명영화들을 상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령들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새기고 당의 영도를 따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각인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도 예전만 못한 영화예술의 선전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듯 하다. 김정은도 좋은 영화란 시대적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이 좋아하며 즐겨보는 영화가 명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영화창작가들은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들을 적극 발굴하고 인민의 사상 감정을 담은 민감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했다.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은 내용 자체는 과거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은 큰 틀에서 선군문학론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체문학론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주체의 강조는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을 분명 가로 막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주문과 달리 실제 창작현장에서는 보수적 창작 스타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재의 변화와 개발은 가능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주체문학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창작방법론 자체의 혁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고루한 북한의 기록영화가 북한 체제내에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도 기록영화가 도식화되고 유형화되어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500여명으로 추정되는 기록영화 제작전문가들을 앞세워 김정은의 성공신화 창조와 더불어 더욱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인민성 향상을 꾀할 것이다. 또한 영화문헌과 달리 주제기록영화에서는 다양한 영상적 실험을 시도할 것이다. 이로써 내부단속과 외부과시, 이 두 마리 토끼를 기록영화

를 통해 얻고자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영화는 속도전에 대응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선전선동의 최전선에서 상당기간 그 정치적 사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김승, 『북한 기록영화』(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김승, 『북한 기록영화, 그 코드를 풀다』(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수잔 헤이워드, 이영기 옮김, 『영화사전: 이론과 비평』(서울: 한나래, 1999).

나. 연구논문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 특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의미 체계 : <계승자들>에 대한 표상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5권(2015).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장르적 특성 연구: ‘주체의 기록영화이론’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15권 2호(2014).

2. 북한문헌

가. 단행본

김일성,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미술가들과 한 담화(1966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문예출판사, 1973).
김정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원들앞에서 한 연설(1970년 10월 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나. 연구논문

리현순, “천만군민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조선예술』, 제3호(2016).

위웅용,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조선예술』, 제6호(2016).

다. 언론

『로동신문』, 2012년 3월 1일, 2016년 1월 1일, 2016년 8월 27일, 2016년 10월 23일, 2016년 11월 15일, 2016년 12월 5일, 2016년 12월 23일.

3. 해외문헌

Bill Nichols,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부록) 김정은 시대 주요 기록영화 목록(2012-2016)

NO	제 목	초방일	비고
	○ 2012년 기록영화		
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1(2012).1.	2012.01.03	
2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2012.01.08	로동20121229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0.11~12)	2012.01.14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증에서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13)	2012.01.18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증에서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14)	2012.01.20	
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증에서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18)	2012.01.21	
7	위대한 혁명생애의 2011년	2012.01.24	
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 학원을 방문하시였다 (주체101(2012).1.24)	2012.01.26	
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 – (주체100(2011)	2012.02.07	
10	우리 장군님은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	2012.02.14	로동20130215
1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1.1)	2012.03.04	
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1)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리(전편)	2012.03.15	로동20120301
1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1)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리(후편)	2012.03.15	로동20120301
1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주체101.(2012.3.14))	2012.03.16	
1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2)	2012.03.19	로동20120320
1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3)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리 –	2012.03.20	로동20120320

17	푸른숲의 주인들	2012.03.20	
18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8부) -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	2012.03.21	
1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1.2)	2012.03.23	
20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9부) -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여 -	2012.03.30	
2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1.3)	2012.04.06	
2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광명성절 기념(주체101)	2012.04.07	
23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주체101(2012).4.11-한평생 인민들속에서(9) (첫회)	2012.04.15	
24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	2012.04.15	
25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 주체101(2012).4.14	2012.04.15	
2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 주체101(2012).4.13 -	2012.04.16	
27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 성대히 진행 - 주체101(2012).4.13	2012.04.17	
28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10부) -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여 -	2012.04.18	
2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대표자회 참가자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1,4,17 -	2012.04.20	
3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진행 - 주체101.4.15 - (첫회)	2012.04.20	
3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1.4.20 -	2012.04.22	
32	김정은, 만수교고기상점 준공 축하 - 주체101(2012)년4월 25일	2012.04.28	
3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건설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1(2012).4.26 -	2012.04.28	
34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655련합부대 종합전술연습 지도 - 주체101(2012)년4월 27일 -	2012.04.29	
35	김정은, 조선인민군창건 80돐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 - 주체101(2012)년4월 27일	2012.04.27	

3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655련합부대의 종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4.27 -	2012.04.30	
3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릉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4.30 -	2012.05.02	
3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1절에 즈음하여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찾으시고 로동계급들을 축하하시였다 - 주체101(2012).5.1 -	2012.05.03	
3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릉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을 또다시 현지 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5.5 -	2012.05.06	
4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1.4 -	2012.05.07	
4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1(2012).5.9	2012.05.12	
4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5.24 -	2012.05.26	
4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5.24 -	2012.05.26	
4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1(2012).5.24	2012.05.26	
4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5.26 -	2012.05.28	
4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전거리에 일떠선 아동백화점과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 주체101(2012).5.30	2012.05.31	
4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 경상탁아소,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5.30 -	2012.05.31	
48	미래를 키우시는 위대한 사랑	2012.06.06	
4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 성대히 경축	2012.06.08	
5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1.5)	2012.06.16	
51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제24부) -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시려 -	2012.06.21	
52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제25부) - 세계정치의 영원한 원로 -	2012.06.22	
5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7.6 -	2012.07.09	
5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상유치원을 돌아보시였다 - 주체101(2012).7.14	2012.07.15	

55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릉라인민유원지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 – 주체101(2012).7.25 –	2012.07.26	
56	전시군수공업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	2012.07.29	
5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릉라인민유원지 1단계건설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	2012.07.30	
5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1(2012)7.30	2012.07.31	
5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주체101(2012)7.30 – (2012.7.31 재방)	2012.07.31	
6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주체101(2012).8.17 –	2012.08.18	
6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선동부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8.25를 뜻깊게 경축하시였다 – 주체101(2012).8.25 –	2012.08.27	
6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1.6.30 ~ 7.30)	2012.08.30	
6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주체101.(2012).9.4	2012.09.06	
6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1.8.5 ~ 9.7	2012.09.21	
65	만경대혁명학원에 깃든 위대한 사랑	2012.10.11	
6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60돐 성대히 기념	2012.10.30	
67	군사복무의 그 시절처럼	2012.11.06	
6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1.9.21 – 10.29)	2012.11.12	
6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 주체101(2012).11.30	2012.12.01	
70	어버이장군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여	2012.12.01	
71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4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돈지를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리 –	2012.12.08	로동20121212
7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 주체101(2012).12.17	2012.12.19	
73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27)	2012.12.19	로동20121223

7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	2012.12.20	로동20121221
75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 주체101(2012).12.21 -	2012.12.22	
76	어버이장군님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계시여	2012.12.23	로동20151224
7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주체101(2012).12.24)	2012.12.25	
7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로동자,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1(2012).12.30 -	2102.12.31	

○ 2013년 기록영화

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 주조 외교대표들과 함께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주체102(2013).1.1	2013.01.02	
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1.11-12)	2013.01.14	
3	선군조선의 대경사를 안아오시여	2013.01.23	
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주체102(2013).1.28-29)	2013.01.31	
5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첫 수여식 진행 - 주체102(2013).2.15 -	2013.02.15	
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어버이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 주체102(2013).2.16	2013.02.16	
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롱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를 관람하시고 미국NBA 이전선수와 일행을 만나시였다 - 주체102(2013).2.28	2013.03.02	
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1~2	2013.03.03	
9	백두산혁명강군의 새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2013.03.05	
1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또다시 시찰하시였다 - 주체102(2013).3.7	2013.03.08	
1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백령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와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 주체102(2013).3.11	2013.03.13	

1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주체102(2013).3.13 -	2013.03.15	
13	어버이장군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여	2013.03.19	
1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전국경공업대회 성대히 진행 - 주체102(2013).3.18-19	2013.03.20	
15	어버이장군님 지식인들과 함께 계시여	2013.03.27	
1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군선전일군회의를 지도하시였다 - 주체102(2013).3.28 -	2013.03.29	
1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광명성절 성대히 경축	2013.03.29	
1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엿다 - 주체102(2013).3.31	2013.03.31	
19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 주체102(2013).3.31 -	2013.04.02	
2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3(전편)	2013.04.05	
2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3(후편)	2013.04.05	
2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 - 주체102(2013).4.1 -	2013.04.07	
2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모란봉악단이 조선인민군 제630련합부대를 축하방문하고 화선공연진행	2013.04.14.	
2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주체102(2013).4.15 -	2013.04.16	
25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 주체102(2013).4.15 -	2013.04.17	
26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1)- 인민사랑의 한평생	2013.04.25	
2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81돐 성대히 경축	2013.04.27	
2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함께 5.1절기념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 주체102(2013).5.3 -	2013.05.06	
2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 - 주체102(2013).3-4 -	2013.05.07	

30	미래를 꽃피우시는 위대한 사랑	2013.05.30	
3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성대히 진행	2013.06.07	
3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의 산악 오성산의 최전연초소들과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를 시찰 - 주체102(2013).6.2 -	20130.6.14	
3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4~5 -	2013.06.15	
3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5 -	2013.06.16	
35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6.21-23 -	2013.06.25	
3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강도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주체102(2013).6.23	2013.06.27	
3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6 -	2013.07.06	
3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6	2013.07.06	
3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주체102(2013).7.8 -	2013.07.08	
40	안개속의 과녁	2013.07.21	
4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 주체102(2013).7.24	2013.07.25	
4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60돐 성대히 경축	2013.08.02	
4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7	2013.08.06	
44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빛내이시려	2013.08.07	
45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2) -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계시여 -	2013.08.23	
4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 주체102(2013). 9.2-3 -	2013.09.06	
47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3) - 내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2013.09.08	
4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 주체102(2013).9.8 -	2013.09.09	

4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공화국창건 65돐 성대히 경축	2013.09.13	
5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9	2013.10.02	
51	위대한 동지(1) - 선군의 한길에서 -	2013.10.07	
5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 주체102(2013).10.9	2013.10.09	
5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주체102(2013).10.10	2013.10.10	
5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조선로동당만세》를 관람하시였다 - 주체102(2013).10.10 -	2013.10.11	
55	문수물놀이장에 깃든 인민사랑의 새 전설	2013.10.17	
56	인민을 위한 승마봉사기지를 꾸려주시여	2013.10.25	
5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진행	2013.10.26	
5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 - 주체102(2013).8-10 -	2013.11.02	
5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10 -	2013.11.03	
60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4) - 후대들을 위하여	2013.12.06	
61	위대한 동지(2) - 영생하는 삶 -	2013.12.23	
6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주체102(2013).12.24 -	2013.12.24	
63	인민의 기쁨 넘치는 중앙동물원	2013.12.27	
6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주체102(2013).12.26	2013.12.29	
65	백두산대국의 전성기	2013.12.31	

○ 2014년 기록영화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4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주체103(2014).1.1	2014.01.02	
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2(2013).11 ~ 12 -	2014.01.05	
3	날로 변모되는 창성	2014.01.08	
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롱구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 주체103(2014).1.8 -	2014.01.09	
5	조선의 새 선경을 펼쳐주시여	2014.01.26	
6	살기좋은 대홍단	2014.02.07	
7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5) - 우리식 CNC화의 실현을 위하여 -	2014.02.11	
8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여	2014.02.11	
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주체103(2014).2.16 -	2014.02.16	
10	부강조국건설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여	2014.02.25	
1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 주체103(2014).3.9 -	2014.03.11	
1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1-2 -	2014.03.11	
1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2014.04.03	
14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1)	2014.04.07	
15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2014.04.16	
1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성대히 진행	2014.04.21	
17	친필에 어린 어머니의 목소리	2014.05.01	
1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3-4 -	2014.05.07	

1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 주체103(2014).5.9 -	2014.05.11	
2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3-4 -	2014.05.12	
21	위대한 동지(3) - 사랑은 대를 이어 -	2014.05.24	
22	대동강반에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	2014.05.26	
23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	2014.05.31	
24	어머니당의 품(1) - 우리 아버지 -	2014.06.04	
25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6) -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	2014.06.19	
2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주체103(2014).7.8-	2014.07.09	
2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5-6 -	2014.07.16	
2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5-6	2014.07.18	
2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7 -	2014.07.18	
30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7) - 백두의 혁명전통을 생명선으로 -	2014.08.13	
31	항일유격대나팔수처럼	2014.08.17	
32	어머니당의 품(2) - 인생은 어떻게 빛나는가 -	2014.08.23	
3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7-8 -	2014.09.09	
34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8) - 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빛내주시여 -	2014.09.15	
35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2)	2014.09.25	
36	노래하라 사랑의 집 행복의 요람이여	2014.09.30	
37	인민사랑의 뜻 받들어가는 보건일군들	2014.10.20	

3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성대히 진행- 주체103(2014). 11.3 - 4 -	2014.11.06	
39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 8 ~ 10 -	2014.11.13	
40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9) - 우리인민을 참된 애국자로 키우시여 -	2014.11.23	
4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 11 -	2014.12.06	
42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	2014.12.17	
43	그리움의 3년	2014.12.18	
44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2014.12.19	
4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였다 - 주체103(2014).12.27 -	2014.12.29	
46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2014.12.30	

○ 2015년 기록영화

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12 -	2015.01.06	
2	시대의 전우	2015.01.08	
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3(2014).11-12 -	2015.01.09	
4	위대한 변혁의 해 2014년	2015.01.17	
5	신념과 의지의 화신	2015.02.04	
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 -	2015.02.07	
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 -	2015.02.10	
8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10)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 -	2015.02.13	
9	철령아래 사과바다	2015.02.17	
1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2 -	2015.03.05	

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2 –	2015.03.11	
12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 경축– 주체104(2015) –	2015.03.18	
13	위대한 동지(4) – 사랑과 믿음 –	2015.03.19	
14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 주체104(2015).4.17 ~ 18 –	2015.04.24	
15	선군시대 공로자들(3)	2015.05.01	
16	어머니 당의 품(1)-우리 아버지-	2015.05.02	
1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 3 ~ 4	2015.05.04	
1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 3 –	2015.05.05	
19	행복의 기념사진	2015.05.19	
2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 4–5 –	2015.06.04	
2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 5 –	2015.06.05	
22	전시군수공업 로동계급의 영웅적 투쟁	2015.06.22	
23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하여(1)– 산림복구전투의 포성은 울렸다	2015.07.05	
2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 주체104(2015).7.25 –	2015.07.28	
25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2015.08.14	
2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7 –	2015.08.21	
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시였다 – 주체104(2015).7.28 –	2015.08.01	
2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 6 –	2015.08.31	
29	승리의 전통	2015.09.08	

3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 주체104(2015).9.7	2015.09.09	
3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7-9	2015.10.08	
3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 8 ~ 9 -	2015.10.09	
3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 주체104(2015).10.9 -	2015.10.12	
3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성대히 경축	2015.10.18	
3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0 -	2015.11.04	
36	한생을 변함없이	2015.11.15	
37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3)	2015.11.24	
38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0-11 -	2015.12.03	
3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1	2015.12.04	
4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수여식 진행 - 주체104(2015).12.28	2015.12.30	
41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이끌어주시여	2015.12.30	

○ 2016년 기록영화

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2 -	2016.01.08	
2	혁명적대경사의 해 2015년	2016.01.09	
3	체육강국의 2015	2016.01.27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	2016.02.11	
5	체육열풍속의 2016		
6	우주정복자들에게 값높은 영광을 안겨주시여	2016.02.24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5).12-주체(2016).1 -	2016.02.26	
8	우리 당 전투기록집을 펼치며	2016.03.11	
9	속도전의 첫 포성이 울리던 그때처럼	2016.03.19	
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 화력타격연습 진행 - 주체105(2016).2.24 -	2016.03.27	
1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4(2016).1-3 -	2016.04.08	
12	번영하는 평양	2016.04.16	
13	사랑의 금방석	2016.04.27	
14	우리당세포	2016.05.10	
15	쇠물집추억(제1부)	2016.05.21	
16	쇠물집추억(제2부)	2016.05.22	
17	황금해력사의 창조자들	2016.05.22	
18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2016.06.01	로동161023
1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5(2016).3-5 -	2016.06.05	
20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절세의 위인(2) - 위대한 전환 -	2016.06.18	
21	국산화의 기치를 들고	2016.06.23	
22	충정의 70일전투	2016.06.28	
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을 접견하시였다 - 주체105(2016).6.30 -	2016.07.01	
2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5(2016).6 -	2016.07.03	
25	우리 원수님과 백두청춘	2016.07.21	

2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5(2016).5~7 –	2016.08.06	
27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	2016.08.27	
28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2016.09.05	
2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5(2016).7~8 –	2016.09.10	
30	인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4)	2016.11.02	
3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지도 – 주체105(2016).9 ~ 10 –	2016.11.14	
32	어머니당의 품(4) – 은혜로운 해빛아래 청춘은 빛난다 –	2016.11.28	
3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 주체105(2016).9–11 –	2016.12.11	
3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6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2016.12.17	
35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성대히 진행	2016.12.29	